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서울 동작을 출마선언

8 민주노총 | © 승인 2008.03.19 14:57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진보 새 역사 만들겠다”, “노동자·민중 이름으로, 사이비 개혁세력 대표·반 노동자 후보들에게 심판 내리겠다”

18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과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자가 대결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전략공천 결정에 따라 총연맹 임원을 총선 최고 접전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진출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18대 총선 서울 동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당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 당 주인”이라고 전제하고 “정몽준 후보는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고, 태안기름유출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권력만 탐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마치 이 나라가 자기 것인 양 맘대로 하는 후보들을 우리 민주노동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고 “우리는 진실을 분명히 알리고 당당히 맞서는 민주노동당 확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동자 단결구심인 민주노총과 협의해 민주노총 임원을 동작을 지역에 출마케 하는 전략 공천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명박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체가 민주노총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정부는 고소영 내각에서부터 에스 라인까지 포함해 1인당 평균재산이 40억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이고, 대통령도 1천억 넘는 재산가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알 리 없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몽준 후보는 재벌이면 재벌답게 사회적 역할을 하면 되는데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노동자 농민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중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갈 곳이 없다”며 “우리는 정몽준의원 국회 입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서민들에게 호소하고 서민들 표를 받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동작을 대표가 돼야 한다고 판단해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논의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재벌과 노동자의 대결을 이슈화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18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결의와 민주노동당 전략공천에 따라 동작을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동작을은 노동자 서민들 거주지인데 보수양당 대표인사들이 출마하면서 주민들 생활적 정치적 요구는 간데없고 보수양당 자존심 싸움터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몽준 후보는 공개된 재산만 1조에 달하는 세계적 부자로 이 땅 경제적 모순을 응축하는 재벌로서 ‘눈물의 신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 어마어마한 부는 몇 십년간 수십 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피와 땀이 어린 노동 산물”이라고 말하고 “정치변화에 따라 집권세력을 따라다니다 이제 더 큰 욕심에 지역을 옮겨 동작을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부총리 장관을 했고, 여당 대표를 지냈으며 얼마 전 대선에서는 집권여당 후보였다”고 전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전통을 배경으로 정치를 하며 개혁세력이라는 허울을 쓰고 정치를 해 온 대표인물”이라며 “지난 정권은 개혁정치를 바라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리고 이라크 해외파병, 한미FTA 강행 등으로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870만 비정규직을 양산해 국민들을 실업과 저임금 불안으로 내몬 국정실패 정권 대표적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이고, 중소기업사업장 제조업 노동자이며, 현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 땅에서 차별과 부당함을 몸소 겪으며 그 부당함에 맞서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그간 활동을 자평, “보수정치세력 양대 상징인물이 출마해 정국 관심이 집중되는 동작을에서 노동자 이름으로, 민중 이름으로 재벌 대표, 사이비 개혁세력 대표, 반 노동자 후보들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결연히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고 싶으며 민주노동당만이 진정한 노동자, 서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동당만이 1% 부자만을 위한 정치를 멈추게 하고 99%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노동자 서민 대표정당”이라며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진보 새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이 민주노동당 공동대변인을 맡게 됐다.

홍미리기자



민주노총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